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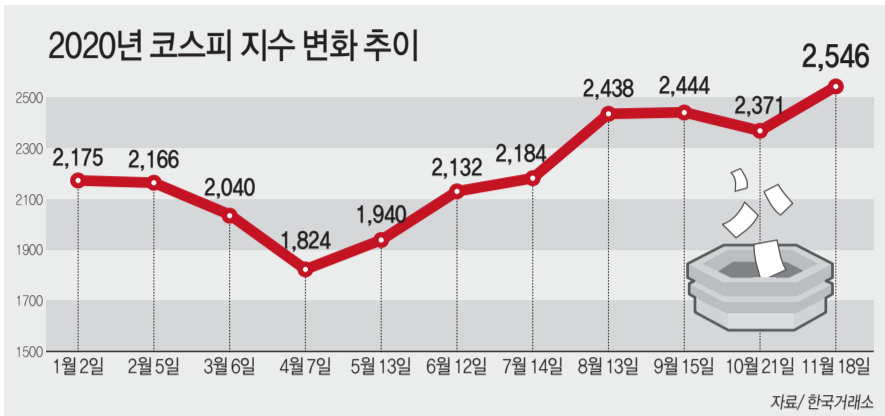
# 올해 백신 개발시 '산타랠리' 청신호... 실적개선주 주목

코로나 재확산·백신 개발 주요 변수  
19일 코스피지수 2년9개월만에 최고  
화학주, 주간 목표주가 상승 상위

연말을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백신 개발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산타랠리란 크리스마스를 사이에 두고 연말과 연초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각종 보너스가 집중된 연말에 소비가 늘고, 배당을 목적으로 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기업은 3분기 실적개선에 성공했다며, 관련주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1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78포인트(0.07%) 상승한 2547.42에 장을 마감했다.



증가 기준으로 지난 2018년 2월 1일(2568.54) 이후 2년9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지난 10월 2300선 박스권에서 오르내리던 주가는 11월 들어 2500선을 돌파했다.

특히 외국인이 11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며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 약세(원화 강세) 전망이 이어지자 환차익을 노린

투자가 늘어났고,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통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신고가를 형성했던 2018년 코스피 지수의 상승은 오롯이 대형 IT 업종만이 주도했지만, 현재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대형 IT 업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코스피의 시총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고, 2차전

지·소프트웨어 등 성장기업과 자동차·화학 등 중후장대 업종의 긍정적인 전망이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백신 개발 이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를 연속 300명을 넘어섰고, 미국의 경우 신규 확진자 수 16만명대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연말 내 백신 개발이 이뤄진다면 산타랠리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 분석이다.

박옥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백신 개발이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 사용신청을 하는 시기일 것"이라며 "현재 주요 제약업체의 개발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시점은 빠르면 12월 초·중순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의 승인이 이뤄지면 연말 산타랠리를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적개선이 이뤄진 기

업에 주목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등 다수의 화학주가 주간 목표주가 상승 상위를 기록 중"이라며 "이번주 어닝스프라이즈 발표와 함께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자 이를 반영해 목표주가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코로나19에 간접적인 피해를 본 부분이 있으나 백신 개발과 무관하게 내년엔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성장주에 대한 홀딩 전략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 정상화와 추세를 함께 하는 가치주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며 "반도체 경기 회복, 경제활동 정상화,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등을 이유로 수출 모멘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 가치주 투자매력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SK건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속도낸다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내달 767가구 분양

국내외 해상풍력 제작·시공사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여  
'원 팀 오퍼레이션' 체제 구축 예정

SK건설이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SK건설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본사에서 국내외의 15개 해상풍력 설계·제작·시공사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기술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해저면에 기초를 세우지 않고 먼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부표처럼 띄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입지 제약에서 자유롭고, 환경 및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으며, 어업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육지나 근해에 비해 빠른 풍속을 이용해 고효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



안재현 SK건설 사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협약식에 참석한 15개사 관계자들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건설

며,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내 전력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건설은 사업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내외 설계사, 기자재 제작·시공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원 팀 오퍼레이션'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이번 협약의 계기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 개발은 물론 지속적으로 사업기회를 발굴해 동반성장을 이뤄내겠다"며 "한국형 부유식 독자 모델 개발도 반드시 성공시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한화건설은 오는 12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51-3 일원 무주골 근린공원 바로 앞에 들어서는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를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하 3층~지상 23층, 9개 동, 전용 84㎡ 단입면적 총 767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84㎡A 195가구 ▲84㎡B 281가구 ▲84㎡C 107가구 ▲84㎡D 184가구로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중형대 단입타입이다.

교통편으로는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세 정거장 거리로 인천지하철 2호선(인천시청역)과 수인분당선(원인재역)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및 기타 경기권으로의 접근이 좋다. 차량으로는 인접한 경원대로를 이용해 인천시 전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제2경인고속도로(남동IC, 문학IC), 수도권제1·2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을 통한

광역 이동도 편리하다.

다양한 교통 호재도 예정됐다. 2022년 착공 예정인 GTX-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잇는 노선이고, 개통 시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인근으로 인천 송도역을 출발해 화성 어천역을 지나 KTX경부선과 연결되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도 예정돼 있다.

한화건설 류진환 분양소장은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는 도심의 편리함과 자연의 쾌적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단지로 벌써부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다"면서 "공원 특례사업으로 입지적인 희소 가치가 매우 큰데다 포레나 브랜드만의 친환경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 차기 정책 수혜주에 투자 '바이든노믹스랩'

한국투자증권, 주요종목 선별 투자

한국투자증권은 조바이든 행정부 출범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한국투자바이든노믹스(Bidenomics)랩'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이틀간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5000만원이다.

'바이든노믹스랩'은 바이든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친환경 중심 인프라 투자'와 '인공지능 육성 및 5G 보급' 정책에 맞는 주요 종목을 선별해 투자한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 분야의 테슬라와 엔페이스에너지, 5G·인공지능 분



야의 AMD와 쿼컴 등이 대표적이다. 종목별 분할매수를 통해 매입 단가를 분산하고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위험자산 비중을 30% 이내로 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

## 교보증권 한신평 신용등급 AA-로 상향

교보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등 사업 다각화에 성공하며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한국신용평가는 교보증권의 신용등급을 기존 'A+/긍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한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교보증권의 다각화된 사업부문에 기반한 양호한 이익창출능력, 리스크 관리 강화로 고위험자산 축소,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적정성 개선 등이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반영했다. 교보증권은 투자증개와 자산관리와 투자은행(IB부문) 영업력 강화로 2015년 이후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약 9%대로 업계 상위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 /송태화기자

## KODEX 은행 ETF, 순자산 2000억 돌파

삼성자산운용, 국내 첫 섹터 ETF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06년 6월 상장된 국내 첫 섹터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은행 ETF'의 순자산이 2000억원(18일 애플앤가이드 기준 204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은행주 저평가 인식 속에서 고배당 매력에 더해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삼성자산운용 측은 설명했다.

이 ETF는 국내 은행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한국거래소(KRX) 은행 지수를 추종한다. 투자 종목 비중은 전날 기준 KB금융(21.21%), 하나금융지주(21.05%), 신한지주(19.21%), 우리금융지주(16.98%), 기업은행(8.62%) 등이다.

증권사와 은행 호실적에 따른 금융주 상승세에 힘입어 전날 기준 최근 1개월



수익률 19.53%, 3개월 수익률 12.38%, 6개월 수익률 33.06%를 달성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이 ETF는 은행과 금융주주로서 이뤄진 KRX은행지수를 추종하는 ETF로서 현 주가 수준 대비 5% 이상의 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인컴수입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소개했다.

/송태화 기자